

2020-2학기

인문과학대학 독어독문학과

우수논문 공모전

고트홀트 레싱의 『현자 나탄』 속 나탄의 두 가지 역할

소속: 인문과학대학 독어독문학과

학번: 18

목차

I. 들어가며	2
---------	---

II. 이성을 강조한 계몽주의 정신과 레싱

1. 시민 계급의 성장과 작가의 자율성 증대	3
2. 괴체와의 종교 논쟁과 기독교에 대한 비판	5

III. 『현자 나탄』 속 나탄의 역할

1. 계몽주의 정신의 상징인 주인공 유대인 나탄	7
2. 주변인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조력자 나탄	9

IV. 나가며	11
---------	----

참고문헌 및 참고자료	13
-------------	----

I. 들어가며

Tretet ein, auch hier sind Götter
들어오라, 여기도 신들은 계시나니¹⁾

고트홀트 레싱 Gotthold E. Lessing이 기독교 교회의 검열을 피해 출판한 희곡 『현자 나탄 Nathan der Weise』(1779)은 십자군 전쟁 시기의 예루살렘에서 주인공 나탄을 중심으로 일어난 등장인물들 간의 갈등 상황과 그 해소를 다양한 상황을 설정하며 서술한다.

레스링의 『현자 나탄』은 가장 첫머리에 고대 로마의 시인 아울루스 겔리우스의 문구를 언급하며 시작한다. 이 문구는 기원 전에 쓰인 문구임에도 불구하고 레싱이 이 작품을 쓰면서 가졌던 생각을 대변하고 있다. 이미 종교로 인해 너무 많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바깥 사회에서의 생각은 잊고 이 작품을 한 번 읽어봐달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문구인 것이다. 작품 안에도 신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현재 논쟁이 되고 있는 신과는 다른 신이라는 것이다. 작가 스스로 ‘극시’라고 분류한 작품이고, 문학으로 읽히기 바랐음에도 이 문구를 인용함으로써 종교라는 문제로 서로에게 큰 피해를 주며 싸우지 말고, 종교 이전에 모두가 같은 사람이라는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레싱은 이러한 생각을 주인공 나탄의 입을 빌려 모두에게 주장하고 있으며, 현대의 독자들에게까지 고전으로 읽히며 전해 내려오고 있다.

이 작품은 주인공인 나탄이 긴 여행에서 돌아오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그렇게 나탄이 긴 여행에서 돌아온 장소는 『현자 나탄』의 주요배경이 되는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은 작품 속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세 종교, 즉 기독교,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교 모두 성지로 삼고 있는 곳이다. 따라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장소라고 할 수 있다. 예루살렘의 살라딘 왕국에서 이들은 종교를 이유로 다양한 갈등을 빚게 되고, 그 중심에는 사람들에게 현자라고 불리는 나탄이 있다. 레싱은 나탄을 계몽주의의 표상으로 내세웠다. 종교적인 이유로 피해 목사와 갈등을 했을 때 당시의 엄격한 시대적 분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집필한 것이다. 따라서 그의 작품 속 배경을 십자군 전쟁 시기로 돌려져 있지만, 그 속에서 작품이 집필될 시기의 현상을 찾아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 엄격한 규율이 지배하던 시기에서 점차 인간의 자율성이 증대되던 시기로의 교차로에 살고 있던 레싱은 문학 작품의 형식을 취하면서 검열을 피하고, 자신이 시대를 향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꺼내 놓았다. 그리고 작품 속에서 주인공 나탄의 입을 빌려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계몽의 시기에 살지 않으면서도 작품을 통해 계몽의 시기를 살았기에 할 수 있었던 생각들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이 작품의 주인공이자 이야기의 가장 핵심이 되는 인물은 바로 나탄이다. 하지만 나탄은 전형적인 영웅의 일대기를 보이지 않는다. 주인공으로서 위기 상황을 전면에서 나서서 모두 똑딱 해결하는 영웅적인 면모를 보이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작품 속 갈등의 전면에서 나서지 않고 외부의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조율자의 면모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현자 나탄』의 제목을 대변하면서 작품의 주제를 온전히 드러내고 있는 한편, 작품 속에서는 오히려 중심 사건에서 한 발 물러선 조율자가 된 것이다. 이러한 나탄의 두 가지 면모는 이념극 Ideendrama에서 나탄이 하고 있는 역할과도 연관되어 있다. 계몽주의 시민비극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고트홀트 레싱이 작품 속에서 중심 갈등을 만들지 않는 나탄을 주인공으로 삼은 이유가 무엇일까? 『현자 나탄』에서 나탄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까? 또한, 단

1) 고트홀트 레싱(2019), 『현자 나탄』, 윤도중 역, 지만지 드라마, 1쪽.

순히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해석에서 벗어나, 나탄의 새로운 면모를 볼 수 있을까?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의문점에서 출발하여 레싱의 『현자 나탄』의 배경이 되는 18세기 당시의 계몽주의와 그것이 빚어낸 사회 상황, 그리고 그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주인공 나탄의 두 가지 모습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해보고자 한다.

II. 이성을 강조한 계몽주의 정신과 레싱

1. 시민 계급의 성장과 작가의 자율성 증대

18세기는 말 그대로 유럽 전역에서 격변의 시기였다.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꽃피웠던 르네상스 시기가 지나고 근세에 발을 담그는 시기였기 때문이다. 영국에서는 청교도 혁명을 지나 산업 혁명이 시작되었고, 증기선과 방직기 등을 사용하는 기계 공업이 주를 이루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하나하나 손으로 상품을 만들어내던 시기에서 동력을 이용하는 시기로 변화한 것이다. 동시에 명예 혁명도 이루어지며 시민 계급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었다. 프랑스도 크고 화려한 바로크에서 로코코의 소규모 살롱 문화로 변화하고 18세기 후반인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전체적인 체제가 뒤바뀌었다. 그렇다면 독일은 18세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

독일의 계몽주의, 18세기 하면 프로이센을 빼놓을 수 없다. 프로이센은 군국주의에 이념을 두고 세워진 나라로, 현재 독일 기준으로 보면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 주를 영토로 하던 나라였다. 프로이센에서는 '프리드리히 대제'라고 불린 프리드리히 2세가 계몽 군주를 자칭하며 서유럽의 절대왕정과는 조금 다른 방향의 계몽주의를 이끌어 나갔다. 프리드리히 2세는 '짐은 국가 제1의 종복이다 erster Diener des Staates라고 말하며 계몽 군주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그와 동시에 오스트리아와 7년 전쟁을 통해 쉐레지엔이라는 전령의 핵심이 되는 땅을 차지하기도 했다. 군국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유지되던 나라였기 때문에 수많은 전쟁들도 치렀지만, 프리드리히 2세는 포츠담에 상수시 궁전을 짓고 볼테르, 루소 등의 계몽주의 철학자와 교류하기도 했다. 이렇게 프리드리히 대제의 노력과 더불어 독일은 다른 유럽의 국가들보다는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지만, 서서히 계몽주의로 들어서고 있었던 것이다.²⁾

계몽주의의 주요 키워드는 시민, 이성, 교육, 합리성 등을 꼽을 수 있다. 산업 혁명의 전 유럽적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여유는 곧 시민 계급의 성장을 촉진했다. 중세 시대에 영주에게 속박되어 있던 삶과는 건잡을 수 없이 거리가 멀어지고, 스스로 자신의 삶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것이다. 계몽주의를 대표하는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 Immanuel Kant는 「계몽주의란 무엇인가? Was ist Aufklärung」 (1784)를 베를린 월보에 기재하면서 당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명문화했다.

계몽주의는 인간이 자기 탓으로 빠져 있는 미성년 상태에서부터 탈출해 나오는 것이다.

Aufklärung ist der Ausgang des Menschen aus seiner selbstverschuldeten Unmündigkeit.³⁾

당신 자신의 오성을 사용하겠다는 용기를 가져라!

2) 안삼환(2016), 『한국 교양인을 위한 새 독일 문학사』, 세창 출판사, 144-145쪽, 참조.

3) 위의 책, 143쪽.

Habe Mut, dich deines eigenen Verstandes zu bedienen!⁴⁾

칸트는 그의 저서에서 알 수 있듯, 교육과 이성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하지만 독일은 계몽주의가 시작되었던 다른 유럽의 국가들보다 이를 받아들이는 반응이 더땠다. 독일은 Dark Ages라고 불렸던 중세 시대에 신성로마제국의 패권을 가지며 가장 번창한 나라였다. 하지만 교회에 의한 권력은 오래 가지 않았다. 1517년 일어난 루터의 종교 개혁 이후로 부패한 교회에 대한 비판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이후 30년 전쟁을 치르며 나라 전체가 또다른 시대를 맞이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독일에서 계몽주의는 프랑스의 살롱처럼 사교적인 분위기가 아닌, 독서클럽을 통해 학문적이고 딱딱한 분위기에서 발전하게 된 것이다.

계몽주의 이전의 시대에는 작가들이 교회나 궁정, 혹은 귀족들의 후원을 받으며 글을 썼다. 따라서 재정적인 이유로 그들은 언제나 자신의 후원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작품을 써야 했다. 하지만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계급인 시민 계급이 성장하면서 작가들은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앞서 언급했듯 독일의 계몽주의는 독서클럽을 통해 발전해왔다. 독서클럽을 통해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신분과 관계없이 토론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히 문학 시장이 성장하게 되었다.⁵⁾ 이처럼 독자층이 늘어나면서 기존의 규범대로 쓰지 않아도 되도록 작가들의 자율성이 커지기 시작했다. 소비하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작가들의 자율성도 커지게 되고, 이는 곧 경제적인 여유로 이어지면서 과거처럼 후원자들에게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관계를 형성한 것이다. 따라서 문학 작품의 내용 상에도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를 대변하는 것이 바로 고전 비극의 대명사, 전기 계몽주의의 고체트와 시민 비극의 아버지인 후기 계몽주의의 레싱이다.

고체트는 유럽 전체에서 통용되던 문학의 전통이었던 규범 시학을 따랐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비극에서의 시간, 장소, 사건이 일치해야 한다는 삼일치의 원칙과 함께 엄격한 규율을 지켰던 것이다. 하지만 레싱은 달랐다. 아리스토텔레스에서부터 고체트까지 이어진 고전 비극의 틀을 벗어던졌다. 그는 비극의 주인공은 귀족, 희극의 주인공은 시민이라는 신분제한 조항을 깨뜨리며 시민들도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시민 비극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시민 비극에서는 도덕적인 시민과 부도덕적인 귀족이 등장하고, 도덕적인 시민이 갈등 끝에 목표를 쟁취한다. 과거의 고전 비극에서는 주인공, 관객 모두가 귀족이었다. 그들의 사회의 기득권이었으며 세상을 바꿀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를 살면 되던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레싱에 와서는 시민 비극에서 관객인 시민 계급에게 일정한 사회적인 메시지를 던지기 시작했다. 여기에서 계몽이 싹텄던 것이다. 고체트와 레싱은 각각 1700년, 1729년에 태어나 이들 사이에는 29년의 시간적 차이가 있다. 이 29년의 차이가 만들어낸 사회적 환경의 변화는 레싱이 시민 비극을 만들어내게 했고, 또 사회를 비판하며 변화시키고자 하는 계몽적 정신을 작품에 담아 관객들에게 내비칠 수 있게 했다. 레싱의 관객들인 시민 계급은 이러한 작품들을 읽으며 기존처럼 운명에 순응하지는 않게 된 것이다. 이처럼 레싱은 독일 문학의 새 장을 열었으며 이러한 문학의 성격은 이후 질풍노도의 시기 Sturm und Drang에서 젊은 괴테의 『젊은 베르터의 고뇌 Die Leiden des jungen Werther』(1774)로 이어지게 되었다.

레싱의 마지막 작품이 된 『헌자 나탄』에서도 그는 종교적인 갈등을 풀어낸다. 이 작품에서는 유대인 상인인 주인공 나탄을 통해 계몽주의적 시선을 찾아볼 수 있다. 나탄은 작품 내에

4) 위의 책, 143쪽.

5) 윤영민(2011), 『Dialogue: 소설미디어와 집단지성.1』, 한양대학교 출판부, 105-135쪽.

서 칸트가 역설했던 우선적으로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그대로 대변한 인물이며, 실제로 대사 속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한다. 왕족, 혹은 귀족이 아닌 시민으로 계몽주의를 풀어나가는 것이 계몽주의를 이해하는 첫 단추가 되며 교훈적이고 교육적인 기능이 강조된다는 특징을 보인다.

2. 괴체와의 종교 논쟁과 기독교에 대한 비판

레싱은 사회를 변화시키겠다는 일념으로 여러 작품들을 집필했다. 그리고 그는 결국 함부르크의 주임 목사 요한 멜히오르 괴체 Johann Melchior Goeze와 종교적인 이유로 갈등을 빚게 된다. 그는 1770년부터 볼펜뷔텔에 있는 아우구스트 공작 궁정도서관에서 사서로 일을 시작하게 됐다. 그는 이곳에서 일하며 『역사와 문학에 관한 기고 Beiträge zur Geschichte und Literature』라는 잡지를 만들고 이 중 친분이 있었던 헤르만 라이마루스 Hermann Reimarus의 글에 주석을 달아 일부를 대중에 공개하게 된다. 하지만 라이마루스의 원래 글에 있었던 내용 역시 기독교를 비판하고 있던 것이었으며, 레싱이 이 글을 라틴어가 아닌 누구나 읽을 수 있는 독일어로 출판하였기에 큰 논란이 생기게 되었다.⁶⁾ 특히, 함부르크 주임 목사인 괴체의 비판이 심했다. 괴체는 “신의 계시에 의한 기독교 교리는 비판적 검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권위”⁷⁾라고 주장했다. 당시 독일의 국교였던 기독교의 교리에 반발하는 것 자체가 불경한 행위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에 맞서 “라이마루스는 신의 존재와 불멸성을 이성으로 밝혀낼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에 상당 부분 동조한”⁸⁾ 레싱은 괴체와 논쟁을 전개하며 11편의 「반 괴체 Anti-Goeze」라는 글을 발표했다.

이렇게 격렬한 논쟁이 전개되자 근본적으로 교회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군주이며 레싱의 고용주인 브라운슈바이크 공작은 레싱에게 『역사와 문학에 관한 기고』의 인쇄와 배포를, 그리고 그 일주일 뒤 「반 괴체」의 속편 출간을 금지시키고 한 걸음 더 나아가 8월 3일에는 브라운슈바이크 영토 밖에서 단편논쟁과 관련있는 글을 발표하는 데에도 당국의 허락을 받으라는 조치를 취한다.⁹⁾

이렇게 괴체 목사와의 논쟁과 후원자였던 공작에 의해 검열을 피할 수 없게 되자 레싱은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낸다. 『현자 나탄』은 작품의 부제로 극시 Dramatisches Gedicht임을 표방하고 있다. 이는 이 작품이 어떠한 종교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순수한 문학 작품이라는 작가의 의지 표현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작품은 괴체 목사와 했던 논쟁, 혹은 그 전부터 『역사와 문학에 관한 기고』를 출판하며 주장했던 기독교 교리를 이성적으로 해석 가능하다는 자신의 주장이 담긴 글이 아니라, 그저 문학 작품의 일부이며 하필 출판된 시기가 이 시기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레싱은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에 대한 좋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잡지에 기고한 글에서 기독교 교리의 비판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이다. 이는 작품 속에서 신전 기사와 수사의 대화 중 대주교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에서도 나타

6) 윤도중(1991), 「레싱의 『현자 나탄』에 나타난 관용과 박애 사상」, 『독일문학』 Vol. 47, 한국독어독문학회, 142-143쪽, 참조.

7) 위의 책, 142쪽.

8) 김희열(2014), 「레싱의 『현자 나탄』: 종교적 관용과 휴머니즘의 유토피아」, 『독일언어문학』 Vol. 66, No. 66, 독일언어문학연구회, 143쪽.

9) 윤도중, 앞의 책, 142쪽.

난다.

화려한 성직자 복장을 하고 회랑을 걸어오는 대주교, 신전 기사, 수사.

Der PATRIARCH, welcher mit allem geistlichen Pomp den einen Kreuzgang heraufkömmt,
und die VORIGEN.

신전 기사 피하는 편이 차라리 낫겠군요. 제가 찾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살도 찌고 혈색도
 좋고 친절한 성직자라. 치장도 요란하군.

수사 궁전에 들어가실 때야말로 볼 만하지요. 지금은 고장 병자를 심방하고 오시는
 길입니다.

신전 기사 그럴 땐 술탄께서 여간 창피하지 않으시겠군요.¹⁰⁾

TEMPELHERR. Ich wüß ihm lieber aus. - Wä'r' nicht mein Mann! -

Ein dicker, rother, freundlicher Prälat!

Und welcher Prunk!

KLOSTERBRUDER. Ihr solltet ihn erst sehn,

Nach Hofe sich erheben. Itzo kömmt

Er nur von einem Kranken.

TEMPELHERR. Wie sich da

Nicht Saladin wird schämen müssen!¹¹⁾

신전 기사의 묘사에서 재물에 욕심을 부리는 대주교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대꾸하는 수사 역시 놀상 있는 일이며, 지금의 치장이 대주교의 기준에서는 과한 것이 아니라는 듯 표현한다. 이는 당시의 타락한 교회에 대한 레싱의 간접적인 비판이라고 볼 수 있다. 레싱이 작품 속 배경으로 설정한 십자군 원정 시기는 기독교, 즉 교황의 기세가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당시 교황이었던 우르바누스 2세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자'는 표어를 내세우며 십자군 전쟁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러한 십자군 전쟁은 초기의 목적인 기독교인의 예루살렘 탈환이라는 목표에서 변질된 채 1,000년을 지속해 온 비잔티움 제국의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침략하고 라틴 제국을 세우기에 이르렀다.¹²⁾ 괴체의 주장이 타락하고 기독교 교리로 시민들의 눈을 가려 어둠의 세계 Dark Ages라는 오명을 쓰게 된 중세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입장을 작품 속 교회 수장의 모습을 통해 드러낸 것이다. 작품 속에서 이슬람의 술탄 살라딘은 나탄에게 이와 비슷한 질문을 던진다.

살라딘 어떤 종교, 어떤 율법이 가장 마음에 들었나?

나탄 폐하, 저는 유대인입니다.

살라딘 그리고 나는 모슬렘이고. 우리 둘 사이에는 기독교인이 있네. 이 세 종교 가운데 어느 것 하나만이 참종교일 거야. (...) 그러니 그대의 식견을 말해주게. 그 근거를 들려주게.¹³⁾

Saladin Was für eine Glaube, was für ein Gesetz

Hat dir am meisten eingeleuchtet?

Nathan Sultan,

10) 고트홀트 레싱, 앞의 책, 157쪽.

11) Gotthold E. Lessing, 『Nathan der Weise』, Stuttgart, 2013, S.95-96.

12) 김덕수 외(2013), 『고등학교 세계사』, 천재교육, 128쪽, 참조.

13) 고트홀트 레싱, 앞의 책, 119쪽.

Ich bin ein Jud'.
 Saladin Und ich ein Muselmann.
 Der Christ ist zwischen uns. - Von diesen drey
 Religionen kann doch eine nur
 Die wahre seyn. - (...)
 Dann mit. Laß mich die Gründe hören.¹⁴⁾

살라딘은 세 종교 가운데 하나의 종교만이 참종교라고 말한다. 이는 괴체가 기독교만이 절대적 진리라고 했던 주장과 유사하다. 하지만 살라딘은 괴체와는 차이를 보인다. 기독교인이 아닌 이슬람교인이 이와 유사한 질문을 한 것, 그리고 나탄의 지혜를 존중하며 그 이유를 물은 것은 레싱이 이 작품을 통해 전하고자 한 바인 괴체의 기독교 중심적 생각에 대한 반론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 질문 역시 레싱이 기독교에 대한 비판을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쓴 대사가 아닐까?

III. 『현자 나탄』 속 나탄의 역할

1. 계몽주의 정신의 상징인 주인공 유대인 나탄

레싱은 『현자 나탄』에서 제목에 등장하는 주인공을 유대인인 나탄으로 설정했다. 기독교인 레싱이 기독교 교리와 관련한 논쟁을 비판하고자 쓴 글에서 유대인을 주인공으로 삼은 데에는 어떤 의도가 숨어 있을까?

18세기의 유럽에서는 유대인에 대한 대우가 아주 좋지 않았다. 당시 유대인이라고 하면 '돈 많은 고리대금업자'의 이미지가 아주 강했던 것이다. 실제로 『현자 나탄』 속에서도 나탄이 상인이며, 빚을 회수한다는 점에서 금전과 관련된 일을 한다는 묘사가 나온다.

나탄	예루살렘에서 바빌론까지는 이곳저곳 들들 데가 많아서 족히 200마일이나 되지. 그리고 빚의 회수란 게 눈에 띄게 진척되거나 술술 풀리는 일도 아니고. ¹⁵⁾
Nathan	Babylon ist von Jerusalem, wie ich den Weg, Seit ab bald rechts, bald links, zu nehmen bin Genötigt worden, gut zwey hundert Meilen; Und Schulden einkassiren, ist gewiß Auch kein Geschäft, das merklich födert, das So von der Hand sich schlagen läßt. ¹⁶⁾
살라딘 Saladin	그대들, 그대 상인들에게도 현금이 너무 많아 곤란하지는 않을 테니까. ¹⁷⁾ Denn auch ihr, auch ihr, Ihr Handelsleute, könnt des baaren Geldes

14) Gotthold E. Lessing, 앞의 책, S. 73-74.

15) 고트홀트 레싱, 앞의 책, 7쪽.

16) Gotthold E. Lessing, 앞의 책, S. 7.

17) 고트홀트 레싱, 앞의 책, 231쪽.

고리대금업은 기독교 교리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던 것으로, <예수의 성전 정화>라는 그림으로도 남아있다. 유럽에 팽배했던 반유대주의 Antisemitismus는 로마 제국에 의해 유대인들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사라지면서 시작되었다. 나라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유럽 전역에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었다. 그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무기이자 최후의 방어선이 바로 돈, 현금이었던 것이다. 중세 시대를 지나며 최고의 자산은 토지였으나 토지는 당시에 주로 수도원이나 귀족들의 소유였을 뿐 유대인들은 토지를 가질 수 없었다. 따라서 화폐 경제가 발달하던 시기를 발판 삼아 그들은 돈을 자신들의 생존 수단으로 삼았던 것이다.

음악가 펠릭스 멘델스존 Felix Mendelssohn의 조부 모세스 멘델스존 Moses Mendelssohn은 유대인이자 레싱의 친구였다. 그는 레싱과 교류하며 레싱의 작품관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멘델스존은 『현자 나탄』에서 주인공 나탄의 모델이 되기도 했다. 유대인이라는 점,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었다는 점 등 작품 속 나탄과 유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다.¹⁹⁾ 레싱은 멘델스존과 교류하며 쌓았던 유대인에 대한 생각과 친분을 자신의 마지막 작품인 『현자 나탄』에서 온전히 드러내고 있다. 유대인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탐욕스러운 고리대금업자가 아닌 모두에게 인정받는 현명한 인물로 묘사했다.

작품 속 배경은 계몽주의 시기가 아니다. 레싱은 검열을 피하기 위해, 그리고 그가 표방한 문학의 영역에 머물기 위해 당대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십자군 전쟁 시기를 배경으로 했다. 등장인물들이 한 곳에 모이는 장소는 이슬람 살라딘 왕국의 예루살렘이다. 여기에서 나탄은 현자로 일컬어진다. 일반 백성들, 탁발승 알 하피, 기독교인인 신전 기사와 수사, 그리고 이슬람의 술탄과 공주 시타에게까지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에게 골고루 인정받은 것이다. 작품 속 나탄의 대사 중에는 레싱이 나탄의 입을 빌려 말하는 듯, 계몽적 인물임을 나타내는 부분들이 있다.

나탄	우리가 우리 민족입니까? 민족이란 대체 뭘니까? 기독교인이나 유대인은 인간이기 이전에 기독교인이고 유대인인가요? 아! 인간인 것으로 족한 사람을 기사님한테서 하나 더 발견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²⁰⁾
Nathan	Wir unser Volk? Was heißt denn Volk? Sind Christ und Jude eher christ und Jude, Als Mensch? Ah! wenn ich einen mehr in Euch Gefunden hätte, dem es gnügt, ein Mensch Zu heissen! ²¹⁾

위 인용문은 제2막 제5장 마지막 무렵의 나탄과 신전 기사의 대화이다. 나탄은 신전 기사에게 사람들이 인간이기 이전에 종교인이냐며 묻는다. 이 대사 속에서 종교로 사람을 나누고 차별하는 18세기의 사회적 상황에 대한 비판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성을 기반으로 시민 계급의 성장을 하고 점차 목소리가 커지던 시기에 구시대적 차별에 대한 비판의 일환으

18) Gotthold E. Lessing, 앞의 책, S. 141.

19) 사순옥(1999), 「반유대주의 Antisemitismus에 대한 레싱의 견해: 『현자 나탄 Nathan der Weise』를 중심으로」, 『통일인문학』 Vol. 33,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99-103쪽, 참조.

20) 고트홀트 레싱, 앞의 책, 82-83쪽.

21) Gotthold E. Lessing, 앞의 책, S. 54.

로 이해할 수 있다. 더불어 신전 기사에게 우리는 종교인이기 이전에 다 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 십자군 전쟁 시기라면 하기 어려웠을 사고방식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탄의 수양딸 레하와 공주 시타의 대화에서도 나탄의 계몽적 사고를 대사에서 간접적으로 언급한다.

레하	아버님은 그저 생명 없는 기록을 머릿속에 쑤셔 넣기만 하는 독서에서 얻는 차가운 지식은 안 좋아하셔요. ²²⁾
Recha	Mein Vater liebt Die kalte Buchgelehrsamkeit, die sich Mit toten Zeichen ins Gehirn nur drückt, Zu wenig. ²³⁾

레하의 명석함을 칭찬하며 책을 많이 읽었을 것이라 말하는 시타에게 레하는 자신의 아버지는 독서를 싫어한다고 말한다. 작품 전체에서 언급되듯 나탄은 레하의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며 양육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책은 많이 읽지 말라고 한 것은, 책이 주는 지식의 틀에 갇히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신 멀리 여행을 다니며 보고 들은 것들을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레하에게 직접 이야기로 들려줬을 수도 있다. 레하가 자신의 지식을 어디서, 왜 들었는지에 대해 모두 기억하고 있다는 언급에서도 나탄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에 대해 레하에게 가르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탄은 신전 기사, 레하, 술탄 살라딘과 대화를 하며 그들이 가진 편견을 벗겨 낸다. 계몽주의의 첫 단추는 이성과 교육이다. 나탄은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태초의 순수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유도한다. 계몽주의자들이 시민들을 교육시켜 세상을 바꾸고자 했던 것처럼 나탄 역시 종교와 관련하여 주변인들에게 이성적인 사고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실에서는 엄청난 멸시를 받던 집단인 유대인이었지만 그들이 계몽주의라는 시대적 상황 하에서 끼친 영향은 대단했다. 다른 한 편에서 유대인들은 독일의 계몽주의를 이끌어낸 집단이었던 것이다.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계몽주의 정신을 받아들였고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계몽주의를 대중화하는 데에 일조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교육에도 힘썼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칸트가 미성년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면 주장한 것과 일맥상통하기도 한다. 따라서 레싱은 작품 전체의 내용을 상징하고 있는 제목에 나탄의 이름을 쓰고, 그가 현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개연성을 부여한 것이다.

2. 주변인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조력자 나탄

나탄은 작품 속에서 전면에 나서지 않는다. 모든 일들이 나탄을 중심축에 두고 일어나지만, 나탄은 작품의 선봉에 서지 않는다. 오히려 한 발짝 뒤로 물러선 채 작품 전체를 조망하는 위치에 있을 뿐이다. 주인공이라면 으레 시련을 겪고, 조력자를 만나 조언을 얻고, 그 조언을 바탕으로 시련을 극복해서 결국은 원하는 목표를 이루어내는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갖기 마련이다. 하지만 『현자 나탄』에서는 주인공이 조력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특이한 구조를 갖

22) 고트홀트 레싱, 앞의 책, 221쪽.

23) Gotthold E. Lessing, 앞의 책, S. 134.

게 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나탄은 작품 속의 등장인물들, 살라딘, 시타, 나탄, 레하, 다야, 신전 기사, 알 하피, 대주교, 수사와 모두 일정한 관계를 가진다. 이들은 각각 나탄과 가깝거나 먼 사이이다. 나탄이 인생을 바꾼 사람도 있고, 나탄의 조언을 통해 기존의 낡은 생각을 버리고 한층 더 성장한 사람도 있다. 질문을 던지면서 해당 인물이 스스로 깨달기를 유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탄을 이러한 방법을 통해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본성으로 돌아가도록 하고 있다. 『현자 나탄』이라는 작품 전체는 나탄에 의해 맺어진 관계이고, 그에 의해 이야기가 전개된다. 따라서 나탄은 작품 속에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 지휘자가 모든 악기와 성부의 악보가 한꺼번에 그려진 지휘자 총보를 보고 전체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총괄하는 것처럼, 나탄 역시 주변 인물들의 행동과 상황을 꿰뚫고 있고, 시기적절하게 조언해주고 있다. 이러한 나탄의 역할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극의 중간에 반지 우화를 설명할 때의 상황이다.

나탄 그런데 폐하,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 전에 짚막한 이야기 하나 하도록 허락 해주시겠습니까?²⁴⁾

Nathan Doch, Sultan, eh ich mich dir ganz vertraue,
Erlaubst du wohl, dir ein Geschichtchen zu
Erzählen?²⁵⁾

살라딘 술탄은 나탄에게 자신의 이슬람교와 나탄의 유대교, 그리고 기독교 중 어떤 종교의 율법이 가장 마음에 들었으며 나탄이 유대교를 믿는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한다. 이에 나탄은 살라딘에게 곧바로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고, 옛 이야기를 들려주겠다며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반지 우화에 대해 이야기한다.

나탄 진짜 반지는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술탄의 대답을 기다린 후)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참된 믿음인지 증명되지 않는 것과 거의 다름없습니다.²⁶⁾

Nathan Umsonst: der rechte Ring war nicht
Erweislich:-
(nach einer Pause, in welcher er des Sultans Antwort erwartet)
Fast so unerweislich, als
Uns itzt - der rechte Glaube.²⁷⁾

직접적인 답변 대신 반지 우화에 대한 설명을 통해 그는 자신의 생각을 술탄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이에 감동받은 살라딘은 그에게 친구가 되어 달라며 간청하기도 했다. 반지 우화를 통해 하나의 뿌리에서 뻗어 나가 같은 공간을 성지로 삼고 있는 세 종교 중 어떤 것이 참종교인지에 대한 논쟁은 의미가 없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이다. 살라딘 역시 나탄을 인정하고 친구가 되어 달라고 한 것에서 나탄의 반지 우화를 통해 자신이 세 종교 중 하나의 종교만이 정답이라고 믿은 편협한 생각을 돌아보게 되었을 것이다. 더불어 레하에게는 수양딸이지만 유대인이기 이전에 받은 것에 감사할 수 있도록 가르쳤고, 실제로 레하도 나탄의 가르침대로 순수하게 자랐음을 알 수 있다. 살라딘과 비슷한 편견을 갖고 있으며 레하를 불길 속에서 구해준 것에

24) 고트홀트 레싱, 앞의 책, 123쪽.

25) Gotthold E. Lessing, 앞의 책, S. 76.

26) 고트홀트 레싱, 앞의 책, 126쪽.

27) Gotthold E. Lessing, 앞의 책, S. 77.

대한 감사 인사를 받는 것을 거부하던 신전 기사에게 역시 민족이 무엇이나고 물으며 자신의 사고를 되돌아보도록 하는 계기를 주었다. 따라서 나탄은 살라딘과 레하, 신전 기사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고 있으며, '모든 인간은 종교인 이전에 사람이다'라는 표어를 가장 잘 나타내어 주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영웅적 면모를 지닌 채 모든 종교 갈등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주인공이었을 수도 있지만, 나탄이 조율자에 머물렀던 이유는 여기에 있다.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작품 전체를 총지휘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현명한 사람, 현자인 나탄 뿐인 것이다. 그는 작품 전체에 크고 작은 영향을 주고, 모두의 사고방식을 바꿔주었다. 칸트의 계몽주의 이념에서 강조한 것처럼, 모든 인간이 미성숙 상태에서 벗어나 본성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이다. 살라딘, 신전 기사의 예에서 볼 수 있듯, 스스로의 생각의 고리에 빠지게 되면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는 입장을 취하게 된다. 이는 곧 흑백사고의 오류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때 상황을 거시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조력자가 곁에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해당 인물의 생각이 미성숙한 상태에 머물고 있다면 이때 약간의 조언으로 그 상황에서 꺼내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조력자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나탄이 작품 속에서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나탄은 현자이고, 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고 있다. 상황 전체를 꿰뚫고 조율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해졌고,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가장 충실하게 조율자이자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IV. 나가며

하나의 작품을 가장 짧고 압축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제목이다. 『현자 나탄』에서는 제목에 한 인물을 등장시키면서 그에게도 시선이 모아지도록 하고 있다. 가장 간단한 작품에 대한 소개를 작품 속 등장인물 중 한 명으로 간결하게 끝내버리는 것이다. 그러한 나탄에게 작품 속에서는 두 가지의 역할이 있었다. 하나는 제목에 등장하는 대표적 등장인물, 유대인 주인공으로서의 나탄이고, 두 번째는 조력자를 자처하지만 작품 전체를 조율하는 나탄이다. 주인공의 경우에는 전면적인 인물이다. 그는 주인공이자 유대인으로서 작가의 문제의식을 대변하고 있다. 유대인에 대한 좋지 않은 시선을 개선하고, 더불어 십자군 전쟁 시기를 배경으로 하면서도 계몽주의의 화신으로서 작품 속 등장인물들을 이성적으로 판단하도록 충고하여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성질로 되돌려주는 역할을 했다. 반지 우화에서 우화를 통해 자신의 뜻을 전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이다. 우화를 들려주면서 살라딘이 스스로 생각해서 깨닫게 하는 계몽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또한, 영웅보다는 조력자의 역할을 했다. 조력자의 경우에는 작품 전체를 휩쓸고 다니는 영웅보다는 많이 돋보이지는 않지만 작품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존재이다. 특히 나탄의 경우에는 혼자서는 자신이 일방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그 사고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기 어려운 주인공들에게 스스로를 성찰해볼 수 있도록 조언도 해준다. 나탄이 없다면 『현자 나탄』의 이야기는 전개될 수 없다. 이렇게 상이한 성격의 두 가지 면모를 모두 가지고 있는 나탄은 입체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나탄은 왜 '현자'라는 수식어가 붙어야만 했을까? 현자는 자신이 직접 붙이는 호칭이 아닌, 주변인들이 그의 지혜를 인정하고 따를 때 붙는 호칭이다. 즉, 나탄은 작품 전체에 팽배한 종교적인 갈등에 쉽게 휩싸이지 않고 오히려 그 갈등에 대해서는 관찰자적인 면모를 보이며 덤덤하게 반응한다. 계몽주의를 문학에 반영하기 시작한 레싱이 나탄이라는 인물을 통해 계몽주의 이념을 주장하

고자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 『현자 나탄』이라는 작품은 현대에도 시의성을 가지고 있을까? 이 책이 고전의 반열에 올라 아직까지도 회자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자 나탄』은 1779년, 18세기 중에서도 후반부에 출판되었다. 즉, 현대로부터 약 300년 전에 쓰인 것이다. 하지만 현대에도 작품 속과 비슷한 종교 갈등이 있다. 이슬람교에서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대립이 격렬하고,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는 종교를 이유로 다양한 전쟁들이 치러지기도 했다. 이것은 종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종교 간의 갈등과 그를 자신들의 이익 창출에 이용하는 열강들이 있다. 그리고 이념 갈등 역시 이와 맥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이념 갈등으로 전 세계는 제2차 세계대전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약 40년에 걸쳐 냉전을 치를 수밖에 없었다. 이 냉전은 또 한반도에서 열전으로 부딪히기도 했다. 그 결과 아직도 대한민국은 휴전국으로 여전히 불안한 정세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더불어 현대 사회에도 아직 차별은 존재한다. 빈부에 따른 차별, 인종, 직업에 따른 차별 등이 만연하고 출신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서도 차별이 존재하기도 한다. 따라서 자신의 틀에 갇혀 있는 사고가 잘못되었음을 알려주는 나탄은 현대 사람들에게도 울림을 준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현대인들에게 나탄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일까? 현대인들에게는 각자의 내면에 있는 어린 왕자와도 같다고 생각한다. 생각의 틀을 깨주고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기 때문이다. 레싱이 극시라는 문학 장르 속에 숨겨놓은 괴체에 반하는 생각들, 그리고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인간 계몽의 의지는 현대인들에게까지 그 불씨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당대를 살아보지 않은 제3자의 입장에서는 나탄이라는 인물이 작품 속에서 하고 있는 절대적인 역할에 대해 고찰해볼 수 있으면서도 스스로가 어떠한 편견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지 반성해볼 기회를 제공해준 작품이었다.

참고문헌 및 참고자료

<참고문헌>

고트홀트 레싱(2019), 『현자 나탄』, 윤도중 역, 지만지 드라마.

김덕수 외(2013), 『고등학교 세계사』, 천재교육.

김희열(2014), 「레스링의 『현자 나탄』 : 종교적 관용과 휴머니즘의 유토피아」, 『독일언어문학』 Vol. 66, No. 66, 독일언어문학연구회.

사순옥(1999), 「반유대주의 Antisemitismus에 대한 레싱의 견해: 『현자 나탄 Nathan der Weise』을 중심으로」, 『통일인문학』 Vol. 33,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안삼환(2016), 『한국 교양인을 위한 새 독일 문학사』, 세창 출판사.

윤도중(1991), 「레스링의 「현자 나탄」에 나타난 관용과 박애 사상」, 『독일문학』 Vol. 47, 한국 독어독문학회.

윤영민(2011), 『Dialogue: 소셜미디어와 집단지성.1』, 한양대학교 출판부.

Gotthold E. Lessing(2013), 『Nathan der Weise』, Stuttgart.

Immanuel Kant(1784), Beantwortung der Frage: Was ist Aufklärung?.